



올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발표

연구원은 지난달 16일 2012년 하반기의 건설 및 주택 경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연구원은 매년 7월에 세미나를 통하여 하반기의 건설 및 주택 경기 전망을 공표해 왔으나, 올해에는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하반기 국내 건설 수주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급증 영향과 민간 수주 위축, 지방 주택건설경기 둔화 및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침체 지속, 작년 기저효과(상저하교패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2012년 연간 국내 건설 수주는 하반기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110조원(경상금액 기준)에 그쳐 부진할 전망이다.

한편, 연구원은 2012년 하반기 주택시장의 주요 쟁점은 '세계 경제 불안의 장기화'와 '부동산 금융 불안'이라는 전반적인 어려움 아래 수도권과 지방의 수급 요인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올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2.0% 하락, 지방 1.5% 상승,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월례회의에서 상반기 사업 성과 보고

연구원은 지난달 6일 오후 5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월례회의에서 김영덕 기획팀장이 상반기의 연구원 사업 성과에 대한 현황 및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백영권 전 연구위원이 초빙되어 '은퇴 후의 바람직한 삶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 주관 예정

연구원은 김희국, 나성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이달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발주처에서 기능 인력에 이르는 생산 구조 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대금지급 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의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과 강운산 연구위원이 각각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 '건설산업 내 합리적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건설산업정보센터 김재영 이사장의 사회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 건설기업,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의 건설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종합 토론회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기획팀(02-3441-0701, 0896)으로 문의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를 참조하면 된다. CERIK